

**주님부활
 대축일**

2 0 2 5
 0 4
 2 0

주보

입당송 시편 139(138),18.5-6 참조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0,34ㄱ.37ㄴ-43

회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2독서 콜로새서 3,1-4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1. 부활을 축하합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인간을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2. 봉사에 감사합니다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전례를 위해 봉사해주신 독서단, 복사단, 성가대, 전례분과, 꽃꽂이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활 음식 준비에 수고해주신 성모회, 구역분과에 감사드립니다.

3. 평일미사 안내

공사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겠습니다.

4. 성당 공사 안내

성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에 공사장 쓰레기가 있을 예정이니, 성당 정문 앞 주차장이나 스트리트 파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등에 미쳐 치우지 못한 못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서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5. 성당 부엌 집기 반납

성당 부엌에서 사용하는 접시, 그릇, 냄비 등을 가정에 보관하고 계신 교우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례상식

신경 대신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신경’은 3세기 「사도전승」에서 유래하며, 이 시기는 온 교회가 함께 박해를 받으며 긴밀히 일치해 있었고 서로 전례서를 교환하며 동질의 전례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 역시 온 교회가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세기 교회에서 신앙고백의 원래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인 세례식이었으며 그래서 이것을 ‘세례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례신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임을 고백하는 ‘본연의 신앙고백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에 관한 심각한 신학논쟁을 거친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교의에 따라 사도신경의 본문에 여러 표현을 첨가하였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제1차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선포했는데 이것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하 ‘신경’)입니다.

4세기 이후로 로마제국이 동서로 나뉘어 통치하면서, 교회의 전례전통도 차츰 분리되어 각기 발전하였습니다. 589년 서방교회는 신경의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시고”를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Filioque …)라고 원문과는 달리 번역하였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 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1054년에 이르러 동서방 교회는 서로를 파문하였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 개신교 종파에서 신경과 함께 사도신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전례는 2002년에 로마 미사 경본 제3판을 반포할 때, 신경과 함께 사도신경 또한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신학이 강조되는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사도신경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미사통상문 19항)

사도신경은 초세기에 온 교회가 공유하던 본연의 신앙고백문이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및 개신교 종파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신경으로서 에큐메니즘의 성격 또한 지닙니다.

기도지향

환우를 위한 기도

설옥진(카타리나) 자매님이 쾌유하실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정성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편지향 기도

- LA 화재와 경상북도 의성,안동 대형 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피신해있는 재난 피해자분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워싱턴 DC 항공기- 헬기 충돌 사고로 희생되고 실종된 67분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27일 주님 부활 제2주일
제1독서 : 윤원희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박기연 에스더	제1독서 : 박태진 콜베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4월 6일	\$1,730	\$325 공소 \$240	\$50	\$2,345	34	5	39
4월 13일	\$1,100	\$215		\$1,315	30		30
4월 20일							
4월 27일							
합계	\$2,830	\$780	\$50	\$3,660			

교무금 현황 정석건(3,4), 민원기(4), 김정숙(4)

벤투라 성당 사목협의회원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	시설분과장	김선태 야고보
부회장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선교분과장	박태진 막시밀리아노 콜베
총무	김상우 아오스딩	홍보분과장	ANDY 대건 안드레아
회계	문기선 데레사	복지분과장	김미숙 마리안나
성모회장	박미라 요세피나		
성가대단장	Dorothy Schaefer (도로테아)	Ventura 구역장	김미화 아네스
신앙교육분과장	정설애 세실리아	Oxnard 구역장	정범순 카타리나
청소년교육분과장	박민정 안젤라	Camarillo 구역장	박민정 안젤라
전례분과장	토마스 버치필드	Santa Maria 공소회장	김영섭 베드로